

# 금요일에 미리보는 주간 투자전략

Weekly | 2017. 4. 21

## 주간 주식시장 리뷰

시황 김병연(02-768-7574) / 조연주(02-768-7598)

### • 금주 주식시장 리뷰

- **영국 6월 8일 조기 총선 결정:** 1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조기 총선이 하원 표결 통과하면서 6월 8일로 확정. 조기총선 실시할 경우 집권당인 보수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브렉시트 협상을 메이 총리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짐. 이에 따라 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되며 파운드화 2%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임
- **은행주 실적 서프라이즈:** 20일 발표된 KB금융과 신한은행 1분기 실적은 설립이래 최대치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1분기 KB금융 영업이익은 5년만에 처음으로 2조원대 진입하였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6,623.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1% 증가

## 주간 주식시장 프리뷰

### • 투자전략: 프랑스의 선택은?

#### • KOSPI 주간예상: 2,130~2,170p

- 상승요인: 1분기 실적 예상치 상승
- 하락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 •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 **23일(현지시간), 5월 7일 프랑스 대선 및 결선:** 최근 극우 르펜과 극좌 멜랑송의 동반 결선 진출 우려가 증폭. 두 후보 모두 반EU정책 공약을 표방. 지지율은 18일 기준, 공화당 중도우파 피용 19%, 신생정당 중도 마크롱 24%, 국민전선 극우정당 르펜 23%, 강경 좌파 멜랑송 19%를 기록 중(FT자료 기준, BVA, Ifop, Ipsos, OpinionWay, Odoxa 평균). 1차 대선에서 지지율과 유사하게 1,2위가 결정된다면, 금융 시장은 단기 리스크 완화로 해석 예상
- **1분기 어닝 시즌 피크:**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실적이 양호(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면서 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1분기 호조에 따른 영향이며,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추세도 상향조정 중이라는 점에서 절대 금액 기준 추가 상향 조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 존재. 현재 KOSPI 전체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는 1분기 44.8조원 2분기 44.6조원 3분기 46.8조원 4분기 42.7조원 (참고로 지난주 1분기 예상치는 43.0조원. FnGuide 컨센서스 기준).
- 다음주는 약 56개의 기업이 실적발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1분기 실적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그룹(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25일),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LG상사,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SK텔레콤(26일), 삼성전자, LG전자, NAVER, KT&G, 삼성화재, 제일기획, 이노션, 롯데케미칼, 기아차(27일), KT, 한국타이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28일) 등
- **투자전략:** 25일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4월말 ~ 5월초 프랑스 대선 등 꼬리 위험 확대 가능성이 지속 중. 다만,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 코스피는 2,100p 초반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상황.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업종별 순환매와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확산, 코스닥의 수급변화 등이 감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 어닝시즌 피크와 함께 종목 장세 지속 예상

## FX Review &amp; Preview

경제 김환 (02-2229-6761) / 김재승 (02-2229-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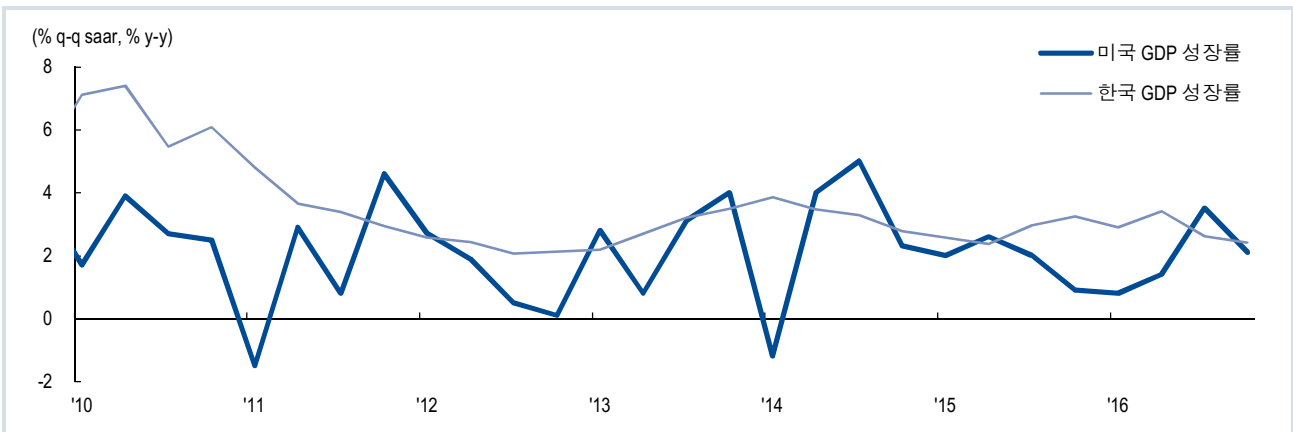
## 1) 주요 환율 동향 및 전망

- **한국 원화:** 원화는 보합.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미지정에도 북한 리스크가 지속된 영향. 수급적으로 배당에 대한 외국인의 역송금으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반면, 수출업체들의 네고 수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미국 달러화:** 미국 달러화는 약세.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며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 영국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안 발표 소식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 **영국 파운드화:** 영국 파운드화는 강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을 선언한 영향.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이 총리의 권한이 강해지며 브렉시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 기대감 높아짐. 또한 2022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며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될 전망

## 2) 다음 주 환율 전망

- **한국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1,115~1,165원**
- **미국 GDP 성장률(4/28):**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1.2%로 예상되며 4분기 2.1%에서 다소 둔화될 전망(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최근 발표되는 미국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한 영향
- 현재 미국 경제지표는 소프트 데이터(ISM 지수, 소비심리지수, 실업청구)는 빠르게 개선되는 데 반해 하드 데이터(소비, 건설지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하드 데이터가 소프트 데이터와의 괴리를 좁히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하드 데이터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한국 GDP 성장률(4/27):**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만.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 중에서 1분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이에 1분기 GDP 성장률 발표치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 내수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기 개선도 기저에 깔려 있다고 판단. 소득 및 소비와 밀접한 1분기 원화환산 수출 증가율, 고용시장, 내구재 판매 등이 개선세

## Macro Chart Snapshot: 한, 미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중요도	Period	Previous	Consensus
<b>4월 24일(월)</b>				
(미)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index)	★	4월	16.9	17.5
<b>4월 25일(화)</b>				
(미) FHFA 주택가격지수(% m-m)	★★	2월	0.0	-
(미) S&P/케이스실러 2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 y-y)	★★	2월	5.73	-
(미) 신규주택매매(% m-m)	★★	3월	6.1	-0.3
(미)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index)	★★★	4월	125.6	124
<b>4월 26일(수)</b>				
(일) 공작기계수주(% y-y)	★	3월	22.6	-
<b>4월 27일(목)</b>				
(유) ECB 통화정책회의	★★★			
(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			
(한) GDP 성장률(% y-y)	★★★	1분기	2.4	-
(미) 내구재주문(% m-m)	★★	3월	1.8	1.2
(미) 도매재고(% m-m)	★	3월	0.4	0.2
(미) 미결주택매매(% m-m)	★★	3월	5.5	-
<b>4월 28일(금)</b>				
(한) 산업생산(% y-y)	★★	3월	6.6	-
(한) BSI 제조업지수(index)	★	5월	82	-
(미) GDP 성장률(% q-q, saar)	★★★	1분기	2.1	1.2
(미)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index)	★★	4월	98	98.5
(일) CPI(% y-y)	★	3월	0.3	0.2
(일) 산업생산(% y-y)	★	3월	4.7	2.5

주: 1) Consensus는 Bloomberg 기준, 날짜는 현지시간 기준  
2) 별 개수는 중요도를 의미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